



영광사랑상품권



영광사랑카드

# 영광군 잘 키운 지역화폐 지역경제 활기 살아난다

호불여영광(戶不如靈光). '사람사는 집이 많기로는 영광만한 곳이 없다'는 뜻으로, 인심 좋고 물산이 풍부해 살기 좋은 고장이란 말이다.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말년에 전라도 지방을 돌아보다 영광군을 두고 한 말이다.

영광군이 부자 고을의 영광(榮光)을 되찾기 위해 히든카드를 내었다. 지역화폐인 '영광사랑상품권'이다.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우고, 골목상권을 살리라는 임무를 띠고 탄생했다. 2019년 새해 첫 날의 일이다.

◇소비패턴을 바꾸다-발행 1년만에 50억 돌파  
'영광사랑상품권'이 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요즘과 같이 지역사랑상품권 붐이 일기 전인 10여 년 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 차례 발행했다. 그러나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하고 사전 준비가 소홀했던 탓에 몇 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소리없이 지취를 감졌다.

실패를 반면교사로 지난해 첫 날 '영광사랑상품권'이 태어났다. 수차례 주민 공청회, 상인회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를 찾아 벤치마킹을 하고, 우수 사례를 영광군에 접목하는 등 발행 이전부터 사전준비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다.

또 주민들이 쉽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31개 금융기관과 판매·환전 업무협약을 맺었다. 언제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도록 영광군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과 자영업 점포,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가맹점을 모집, 1760곳이 등록했다.

구매자들이 상품권을 사용하고 환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반 조성에 힘을 쏟은 결과다.

이 같은 노력과 주민들의 관심 속에 영광사랑상품권은 지난 한 해 동안 50억 원이 넘는 판매고를 기록하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지역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는 영광주민들의 소비패턴을 바꿔냈다. 그동안 광주 등 대도시에서 주유, 식자재 등 소비품을 구매하던 주민들이 지역 주유소와 마트 등에서 '영광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게 된 것이다. 물론 영광사랑상품권을 이용하면 상시할인 5%, 특별할인 10%의 인센티브가 있어 가계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준다는 인식이 확산했기 때문이다.

◇중년층을 사로잡다-'영광사랑카드'로 변신  
영광사랑상품권은 진화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일 종이 상품권을 카드로 확 바꿨다. 종이상품권의 단점을 보완하고 카드의 편의성을 더한 선별식 충전카드인 '영광사랑카드'를 발행한 것이다. 전남 최초로.

## 진화하는 '영광사랑상품권'

31개 금융기관과 판매·환전 업무협약  
상시할인 5%·특별할인 10% 혜택  
골목상권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  
전남 최초 영광사랑카드도 발행  
가맹점 늘리고 카드 수수료 지원

'영광사랑카드'는 지역화폐 통합 앱인 '그리고'를 통해 발급과 충전이 가능하다. 종이상품권과 똑같은 인센티브가 주어져 신용카드 사용에 익숙한 중장년층, 특히 40~50대 남성층의 지역화폐 구매 붐을 일으켰다. 출시 두 달 만에 10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리면서 지역경제의 확실한 우군이 됐다.

영광군은 오는 5월 처음 지급되는 농어민 공익수당과 각종 정책수당도 '영광사랑카드'를 활용해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는 공익수당의 목적에 맞게 사용처의 투명성을 높이고 종이상품권으로 지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부정유통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자 지역경제를 위한 일석이조의 방안이다.

## ◇모르면 손해다-쓸수록 혜택

지난 1년간 지역화폐인 '영광사랑상품권'을 운영한 결과, 안전 계도에 올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다.

지나해 상품권 정착을 위해 구매자 위주의 정책을 썼다면, 올해는 보다 다양한 계층이 상품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재기발랄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우선 '영광사랑카드' 매출분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카드상품권은 종이상품권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수수료 문제가 발생,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카드상품권을 꺼리는 이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에는 '영광사랑카드' 매출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 0.5%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수료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가맹점은 현재 1760곳에서 2000곳으로 늘려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포석이다.

또 상품권 구매 계층의 확대를 위해 영광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때 한시적으로 '영광사랑카드' 10% 인센티브 지급 행사와 축제장내 '영광사랑카드' 현장 발급부스를 운영해 관광객들이 영광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파트 부녀회·학부모 모임 등을 통한 소규모 지인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맘 카페 및 SNS를 활용한 홍보에도 집중해 보다 많은 지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영광의 한 주민이 마트에서 '영광사랑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1월29일 영광군과 한국조폐공사가 지역화폐인 '영광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31 제55회 광주일보 절 전국 마라톤대회

## 2020.3.1.일 AM 8:3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 출발

### 대회개요

- 종 목 | 풀코스, 하프코스, 13km 코스
- 코 스 | 아시아문화전당(구. 전남도청) 출발  
→ 영산강자전거길 안내센터(13km코스 경유)  
→ 서창교(하프코스 반환)  
→ 승촌보(풀코스 반환) → 상무시민공원 끝

### 주요 운영안내

- 지 급 품 | 배번(기록칩 부착), 완주메달, 기록증(완주자), 간식 및 음료
- 개인시상 | 1위~30위까지 시상
- 특 별 상 | 원양부부상, 포토제닉상
- 단체특전 | 단체상 1~10위 시상(상세사항 홈페이지 참조)

### 문 의

http://mara.kjmedia.co.kr ☎ 062-220-0541

- 주최 | 광주일보·(사)전남문화·(사)아시아문화
- 주관 | 광주광역시육상경기연맹
- 후원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지방보훈청
- 협찬 | 광주은행



지역화폐인 '영광사랑상품권'이 출시된 직후인 지난해 설날, 영광군 관계자들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서 '영광사랑상품권'을 홍보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